

Issues in Development

개발과 이슈

제74호 | 2022. 8월

개발협력 관점에서 본 ESG



한국국제협력단은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 향상, 성평 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우호 협력 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이슈』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최근 연구 및 정책을 소개하여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되는 비정기간행물입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자료는 KOICA ODA 전자도서관(lib.koica.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에는 제3자에게 권리(저작권)가 있는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이용 허락은 사용자가 권리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하에 인용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표기 바랍니다.

박지수, 이새물, 윤유리, 2022, “개발협력 관점에서 본 ESG” **개발과 이슈**, no. 74.

※ 본 자료는 KOICA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자

박지수 _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센터 전임
pjs2308@koica.go.kr

이새물 _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센터 전임
mool.lee@koica.go.kr

윤유리 _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센터 과장
yyoon@koica.go.kr

개발협력 관점에서 본 ESG

목차

요약

I. 서론

II. ESG 배경과 공공기관에서의 적용

1. ESG 도입 배경
2. ESG 정의
3. ESG 평가
4. 공공기관의 ESG 도입
5. KOICA의 ESG 도입

III. 개발협력사업에서의 ESG

1. USAID 사례
2. JICA 사례
3. KOICA 사례
4. 개발협력사업에서의 ESG

IV. 결론—KOICA에의 함의

참고문헌

요약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는 전례 없는 일련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ESG의 급격한 부상은 이익만을 추구하던 기업과 자본주의의 중심이 ‘사람, 사회, 환경’으로 이동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에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경영철학이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 대상 선정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기업의 ESG 활동을 평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업별 ESG 정보공시 의무화와 함께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50 탄소중립 달성과 포용·공정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자 ESG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민간기업의 ESG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매년 시행되는 경영평가에 공공기관의 ESG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KOICA 역시 ESG 경영 전략 수립 및 이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21년 ESG 경영 전략 수립을 한 바 있다.

KOICA의 경우 준정부기관으로, 이윤창출에 목적을 두지 않고 정부에서 제시하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방침을 준수하는 동시에 개발협력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KOICA는 ESG 이행 및 접근 방식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복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SG의 개념과 도입 배경, 국내 공공기관의 ESG 경영의 특성을 살펴보고, KOICA의 공공기관으로서 조직 운영 차원의 ESG 경영과 개발협력사업 수행 시 ESG 전략 및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며, 아울러 선진공여기관의 ESG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KOICA는 조직경영 차원에서 ESG 전략방향을 도출하고 경영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ESG를 도입하였고, 개도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ESG 철학을 독려하며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등 개발협력사업에도 ESG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 선진공여기관 역시 ESG 가치실천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USAID는 민간역할을 중요시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기업, 정부, 지역사회 등 개도국 내 ESG 적용과 실천을 지원하는 사업이 두드러졌고, JICA는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환경과 사회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환경) 분야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각 기관별로 표출되는 ESG 형태는 모두 달랐으나 KOICA, USAID, JICA 세 곳의 개발협력기관 모두 E(환경) 부문을 중점적으로 ESG 이행 방향성을 잡고 기관 차원에서 ESG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SG에 대한 세계적인 요구에 비해 개발협력 분야 내 ESG 논의는 아직 미비한 듯 보일 수 있다. 하지만 ESG와 SDGs는 지속가능발전에서 시작되었는 바,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기관별, 국가별로 ESG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SDGs를 이행하는 수단이자 과정으로써 ESG를 비교적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도우며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로 ESG의 많은 부분이 이미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국제개발협력에서의 ESG 논의 확대, 나아가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ESG 확산을 지원하는 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및 수행을 위해서는 KOICA를 포함한 개발협력 참여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고민이 요구된다.

I. 서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는 전례 없는 일련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들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어느 한 주체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높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역행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연간 2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OECD 2020a). 이러한 가운데 정책입안자, 투자자, 기업 경영진 등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ESG) 실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김재필 2021a). ESG의 급격한 부상은 이익만을 추구하던 기업과 자본주의의 중심이 ‘사람, 사회, 환경’으로 이동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에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최근 ESG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ESG는 투자자와 자본시장으로부터 촉발되어 실제로 투자자들이 ESG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조신 2021). 실제로도 많은 국제적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위해 ESG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경향을 보이며, ESG를 핵심 비즈니스 전략으로 삼고 기업의 목적을 지속가능성과 SDGs에 맞추고 있다. 2020년 40조 달러가 지속 가능한 투자로 집계되며 ESG는 이제 몇몇 다국적 기업만의 투자·경영전략 개념을 넘어섰다(Pesme and Silva 2021). EU, 독일을 비롯한 각국 정부들의 기업 대상 ESG 의무 공시 추세도 뚜렷하다.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한국거래소 상장사에게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50 탄소중립 달성과 포용·공정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자 ESG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민간기업의 ESG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매년 시행되는 경영평가에 공공기관의 ESG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윤리·안전 경영 및 이사회 운영, 경영목표·전략 수립 시 ESG 반영 여부를 평가하고, 나아가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 등급 평가 결과를 경영평가의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반영하였다. 이 외에도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안전·환경,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 양립 등 공시 항목을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국내 ESG 평가지표 등을 참고하여 공개 가능한 ESG 항목을 추가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ESG 공시 강화가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촉진하고, 나아가 민간 ESG 경영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역시 2021년 ESG 경영전략 수립을 한 바 있다. 다만, 본래의 ESG가 이윤 추구 목적의 투자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목적하는 개념이라면, KOICA의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서 정부에서 제시하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방침 및 개발협력기관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ESG 이행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복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KOICA는 국내에서 조직을 운영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SDGs 달성을 목표로 해외,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KOICA의 조직 운영 차원에서 국내 환경, 임직원, 파트너사, 봉사단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ESG 경영과 개발협력 사업 수행 시 ESG의 적용 사례 및 실행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SG의 도입배경과 정의, 국내 공공기관의 ESG 경영 특성을 살펴보고, KOICA가 공공기관으로서 조직 운영 차원의 ESG 경영과 개발협력사업 수행 시 ESG 전략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며, 아울러 선진공여기관의 ESG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ESG 배경과 공공기관에서의 적용

1. ESG 도입 배경

ESG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1987년 우리의 공동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조화를 통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함이다.

한편, 산업화를 거치며 기업의 역할은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는 주주자본주의의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주주자본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이념으로서 의심할 여지없다고 간주했으나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며 기업과 주주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구 온난화, 대기오염, 빈부격차, 인종차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했다(한상범 외 2021).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0년 UN은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기업 운영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 글로벌 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를 설립하였으며, 2004년 “Who Cares Wins -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세계적 금융기관들이 모여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권고안을 작성한 것으로 ESG의 기본 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후 2006년 UN은 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 PRI)¹⁾을 제시하였고, 수많은 글로벌 투자회사가 여기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한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²⁾는 2016년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GRI 가이드라인(GRI Standards)를 정립하였으며, 이는 ESG 보고서 작성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투자자들 역시 투자를 결정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ESG를 더욱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OECD 2020b). 일례로, 2020년 세계 경제 침체에 따라 전체 주식형 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ESG 펀드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ESG를 지표로 삼은 상장지수펀드(Exchanged Traded Fund, ETF)³⁾는 2015년 60개에서 2020년에는 4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ESG를 투자 지표로 활용하는 ESG 관련 글로벌 투자금액은 2016년 21.4조 달러에서 2020년에는 40.5조 달러로 증가했으며, 세계적인 투자은행 도이치뱅크(Deutsche Bank)는 글로벌 ESG 투자 규모가 2030년까지 100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김재필 2021a).

-
- 1) 책임투자원칙 6가지: 1) ESG 사안을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절차에 통합할 것이다. 2) 적극적 주주로서 활동하고 ESG 사안을 투자 보유 정책과 관행에 통합할 것이다. 3) 투자 대상 기업에 ESG 사안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는 길을 모색할 것이다. 4) 투자 산업 내에서 책임투자원칙의 수용과 실천을 촉진할 것이다. 5) 책임투자원칙 실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6) 책임투자원칙 실천에 관한 활동과 진척 상황을 각기 보고할 것이다. (www.unpri.org)
- 2) 1997년 미국의 NGO인 CERES와 유엔 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 UNEP)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으며, 200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상설기관으로 확대 개편되었음. GRI의 목적은 모든 조직의 경제, 사회, 환경적 성과에 대한 보고의 정확성과 비교 가능성을 재무보고의 수준으로 만드는 것임.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권위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인 GRI 가이드라인을 제정 운영하는 기관임. (한국표준협회, www.ksa.or.kr/ksi/5009/subview.do)
- 3) 특정 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인덱스 펀드(시장과 동일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한 펀드 (미래에셋 TIGER ETF, www.tigeretf.com)

〈표 1〉 ESG의 역사적 등장 배경 주요 내용

연도	이니셔티브	주요내용
1987	UNEP(유엔환경계획), 브룬트란트 보고서	지속가능발전을 의제로(WCED의장/노르웨이 수상)
1992	UNEP(유엔환경계획), 리우 선언 채택	환경: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신설
1998	ILO(국제노동기구), 4대 원칙 발표	노동: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차별 금지, 강제(아동) 노동 금지
2003	UNEP FI(금융이니셔티브)	ESG 용어 처음 사용
2005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공식용어로 사용
2006	UN PRI(책임투자원칙)	ESG 투자결정 및 자산 운영에 고려한다는 원칙 발표
2010	ISO(국제표준화기구)	사회적 책임 경영의 국제표준으로 ISO26000 제정 발표
2016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표준 발표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원칙, 평가지표 설정 및 발표
2017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요인 재무정보 공개 권고안 제시
2018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산업별(77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을 최초로 체계화
2019	BRT 연례회의의 [New Purpose] 선언	ESG 포함 새로운 기업목적 선언(이해관계자 자본주의)
2020	세계경제포럼(WEF) 지속가능성 의제 논의	지속가능성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백서 발간
2021	한국거래소, 기업 공시제도 개선안 발표	자율공시,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2030년부터 모든 상장사 ESG 보고서 발간 의무화

자료 : 조병옥 2021

즉, ESG는 기업이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제품 생산, 노동자 복지 대우 증진,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연계 등과 같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게끔 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이 이러한 사회 공헌도가 높은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가치로 등장하였다. 지금까지의 주주 중심, 재무적 이익만을 추구했던 자본주의의 폐해를 경험하며, 기업이 그동안 소홀했던 비재무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하기 위한 의지로도 볼 수 있다(한상범 외 2021).

2. ESG 정의

ESG는 기관별로 중점을 두는 요소에 따라 여러 가지 정의가 존재한다. 사전적 의미로서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재무적 요소 이외에 고려해야 하는 비재무적 가치를 의미한다.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는 ESG를 “환경, 사회, 거버넌스와 관련된 리스크, 영향 및 기회에 대해 기업과 투자자가 의사결정 시 고려하는 요소들”로 정의한다. 유사한 맥락으로 OECD(2020b) 보고서에서는 ESG를 “기업이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재무적 성과를 내기 위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요소를 자원 분배와 리스크 관련 결정에 고려하는 접근방식”이라고 정의한다.

〈표 2〉 기관별 ESG 정의

연구자 및 기관명	ESG 정의
IFC	환경, 사회, 거버넌스와 관련된 리스크, 영향 및 기회에 대해 기업과 투자자가 의사결정 시 고려하는 요소들
OECD	기업이 지속할 수 있고, 장기적인 재무적 성과를 내기 위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요소를 자원 분배와 리스크 관련 결정에 고려하는 접근방식
Robeco	기업과 국가가 지속가능성을 얼마나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
KRX 한국거래소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
매일경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
삼성 KPMG 경제 연구원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비재무적 성과
정진섭, 우시진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요소
한상범, 권세훈, 임상균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지침이나, 기업 경영전략의 개념을 넘어서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가치체계를 현실세계에 실천하려는 의지
박영석, 이효섭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기업에서는 ESG에 맞게 자원을 배분하고 ESG를 실천하고 이를 대내외에 알리는 전략을 수립하고 전개하는 경영

자료 : 저자 작성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로베코(Robeco)는 ESG란 “기업과 국가가 지속가능성을 얼마나 적용하고, 실천하는지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Robeco 홈페이지)”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KRX)는 올해 초 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ESG를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ESG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ESG는 공통의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이자 투자 대상을 선정하거나 기업의 의사결정 시, 재무제표나 현금흐름과 같은 금전적인 측면과 더불어 지속가능성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투자와 경영철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ESG 평가

ESG에 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이나 기관의 이행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평가과정 및 그 결과에 관한 관심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600개 이상의 ESG 평가기관이 존재하며, 기관별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에 따른 등급을 매기고 공개한다. 대표적인 글로벌 ESG 평가기관으로는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네셔널(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MSCI),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 레피니티브(Refinitiv), 블룸버그(Bloomberg) 등이 있다.

〈표 3〉은 MSCI의 ESG 평가 목록이다. 환경(E)에는 기후변화, 천연자원, 오염, 친환경으로 카테고리가 구분되고, 세부 항목은 탄소배출과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기회로 연결짓는다. 사회(S) 항목은 인권, 제조 과정에서의 책임, 복지 등 근무 환경과 연관된 카테고리이고, 지배구조(G)는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오너십, 회계와 세무 투명성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ESG 평가를 위해 6만 5,000개의 개별 지표들과 13년간 주주총회 기록들을 확보해 이 자료들이 얼마나 ESG 주요 이슈들과 연관이 있는지를 구분하고, 600개의 정책 프로그램 매트릭스 및 240개 성과 매트릭스를 활용해 37가지 키 이슈와 가중치로 재산정한다. 이 과정을 거쳐 ESG 스코어를 문자 등급으로 변환한다(김재필 2021b).

〈표 3〉 MSCI ESG 평가 목록

필라	테마	ESG 키이슈	
환경 (Environmental)	기후변화	탄소배출 탄소발자국	친환경 파이낸싱 직접투자 기후변화 취약성
	천연자원	물부족 생물다양성 & 부지사용	원자재 조달
	오염&낭비	유독성 물질 배출 패키징 원자재	전력 낭비
	친환경 기회	클린테크 기회 그린빌딩 기회	신재생에너지 기회
사회 (Social)	인적자본	노무관리 건강 & 안전	인적자본 개발 공급망 노동자 표준
	제조물 책임법	제품안전성 & 퀄리티 화학제품 안전성 금융상품 안전성	개인정보 & 데이터보안성 책임투자 건강 & 인구구조 위험
	주주 항의	논쟁의 원천	
	사회적 기회	커뮤니케이션 접근성 금융에 대한 접근성	헬스케어 접근 영양 및 건강 기회
지배구조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지불	오너십 회계
	기업 행태	기업윤리 비경쟁 요소 세금 투명성	부정부패 & 불안전성 금융시스템 불안정

자료 : MSCI, 2022

국내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으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KCGS), 대신경제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이 있다. KCGS는 기존의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2011년 사회책임과 환경경영이 새로이 포함된 ESG 평가를 통해 매년 국내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자체 ESG 평가모형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 평가모형은 크게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3가지 평가 영역으로 나누고 영역별로 평가모형 모델, KCGS 모범규준, 관련 법·제도·규범을 참고하여 분류 및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는 한국거래소의 ESG 테마지수 5종의 종목구성에 활용되며 정책제언 및 연구, 사회책임투자 자문 등에 활용된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2).

KRX에서는 2021년 1월, 국내기업의 ESG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를 제정하였다. 가이드스는 기업의 ESG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기본 원칙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ESG 개념, 정보공개원칙, 중요성 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공개지표 등의 내용을 담았다(한국거래소 2021).

가이드스에 따르면, 기업은 가공 정보와 비가공 정보의 조화, 중립적 관점의 해석 등을 통해 ESG 정보의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요구되는 정보공개원칙은 정확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균형, 검증가능성, 적시성이 있다.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는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또한 기술되어 있으며, 다양한 정보공개표준과 이니셔티브 지표 중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지표들을 선정하여 ESG 권고 공개 지표(12개 항목, 21개 지표)를 마련하였다.

〈표 4〉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 ESG 권고 공개지표 주요 항목

구분	주요 항목	주요 지표
조직	ESG 대응	경영진의 역할
	ESG 평가	ESG 위험 및 기회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참여
환경	온실가스 배출	– 직접 배출량(Scope 1) – 간접 배출량(Scope 2) – 배출 집약도
	에너지 사용	– 직접에너지 사용량 – 간접에너지 사용량 – 에너지 사용 집약도
사회	임직원 현황	– 평등 및 다양성 – 신규고용 및 이직 – 청년인턴 채용 – 육아휴직
	안전 · 보건	– 산업재해 – 제품안전 – 표시 · 광고

자료 : 한국거래소 2021

이러한 가이드언스 및 지표를 바탕으로 ESG 정보의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KRX는 ESG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를 2021년 12월 개시하였다. 플랫폼에서는 상장사의 ESG 공시 및 공개 정보, ESG 투자상품 통계, 국내외 가이드라인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ESG 정보를 집적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금융위원회 2021).

이외에도 국내 공신력 있는 평가시스템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이 있다. 가이드라인은 정보공시(5개), 환경(17개), 사회(22개), 지배구조(17개)의 4개 영역, 27개 범주, 61개 기본 진단 항목을 가지고 있다. 아직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는 비판이 있지만, 기업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ESG 관련 사항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항목을 설정하고, 점수 산정 기준과 필요한 설명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ESG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국내 ESG 평가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 등의 3,000여 개 이상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하여 61개 ESG 이행과 평가의 핵심 · 공통사항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K-ESG 가이드라인은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총 6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 정보공시(P) 분야 5개 문항(ESG 정보공시 방식 · 주기 · 범위 등), ② 환경(E) 분야 17개 문항(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 체계, 친환경 인증, 환경, 법규위반 등), ③ 사회(S) 분야 22개 문항(채용 · 정규직, 산업안전, 인권,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 ④ 지배구조(G) 분야 17개 문항(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위반 등)이 주요 항목이다.

향후, 산업부는 글로벌 동향을 반영한 K-ESG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1~2년 주기로 발간하고 업종별 · 기업 규모별 가이드라인도 내년부터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K-ESG 가이드라인은 우리 기업에게 ESG 경영의 핵심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자율적 ESG 경영확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ESG 평가와는 무관하다(산업통상자원부 2021).

〈표 5〉 K-ESG 가이드라인 구성

영역 구분	주요 진단 항목
정보공시 (P)	- ESG 정보공시 방식, 주기, 범위 등
환경 (E)	- 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체계, 친환경 인증 - 온실가스 및 폐기물 배출량, 환경 라벨링 등
사회 (S)	- 사회책임경영 목표, 채용, 산업재해, 법규위반 등 - 다양성 및 양성평등, 인권, 동반성장, 사회공헌, 정보보호 등
지배구조 (G)	-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 등 -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위반 등

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21

한편, ESG 평가는 비재무적인 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하는바, 매우 복잡하며 통일된 지표를 수립하기 어렵다. 평가기관별로 각각의 기준과 방법으로 기업을 분석하다 보니 동일 기업에 대해 국내외 기관별 등급 격차가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일례로 KCGS,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등 국내 다양한 기관에서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 평가기관별로 항목과 가중치가 상이하여 동일한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에 차이가 존재했다. 평가항목 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가점과 감점 방식을 적용하면서 점수 산정, 가중치 부여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21). 국내의 경우 KRX 및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한바 도입 초기 시장에 존재하는 부담과 혼란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ESG 평가에 대해서도 지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4. 공공기관의 ESG 도입

1) 배경

한국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기업별 ESG 정보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부터 시행된 대형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핵심 정보 의무공개부터 시작하여 일정 규모 이상⁴⁾ 기업의 ESG 정보공시를 2025년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2) 제정, 인권정책 기본법 국무회의 통과(2021) 등의 ESG 관련 규제 법안 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4)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이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ESG 공시의무를 제도화하고 경영평가에도 ESG 항목을 강화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최근의 ESG, 사회적 가치 등 민간과 공공의 논의 동향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사항을 대폭 확대한다’며 ‘안전 및 환경과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과 일가정 양립 등 4가지를 공시에 추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기획재정부 2022).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공공기관의 역할은 국가 경제 내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요 주체이다. 공공기관은 공공성의 실현에 목적을 두지만 그러면서도 효율적인 운영과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등 사회적 가치 추구까지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ESG가 도입되고 정착하는데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볼 수 있다(한동숙 202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에 맞추어 ESG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국가의 수출신용기관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은행이 되고자 ESG 여신·투자 활성화 및 ESG 채권 발행 확대, 기관 운영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 50% 이상 감축을 위한 활동을 목표로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2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에도 친환경 농산물을 확산하고 유통단계를 줄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먹거리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임산부 지원 등으로 ESG 가치를 확산하며 실천하고 있다(한동숙 2021).

다만 공공기관은 기관별 설립 목적과 특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맞는 ESG 경영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기관별 설립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이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관 운영 차원에서의 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대부분의 ESG 이행이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수준으로 그치며, 지속가능경영으로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한동숙 2021).

2) 경영공시 내 ESG 지표

공공기관의 ESG는 경영공시를 통해 공시되며, 이는 경영평가와도 연관된다. 정부 주도로 ESG 관련 공시 항목을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ESG 경영 촉진의 핵심 요소를 마련하고 나아가 민간 ESG 경영 선도를 목표로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경영공시제도에 의해 국내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ALIO) 홈페이지를 소통창구로, 최근 5년간의 주요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공시하고 있다. ALIO 경영공시는 총 41개의 공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공공기관에 따라 분류한 기관별 공시와 단위로 분류한 항목별 공시 등 다양한 공공기관의 채용정보 및 입찰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공시시스템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2022년 2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ESG 관련 항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 2022). 이번 개정은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증대하다는 판단 하에 ESG 경영의 핵심인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관련 공시 항목을 신설 및 보완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공개 가능한 ESG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사회적 포용 문화 확산 및 반부패·청렴 활동 쇄신을 주요 기조로 하였고 KRX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 및 K-ESG 가이드라인 등 국내 ESG 평가지표들을 참고하였다.

〈표 6〉 통합공시 기준 개정 주요 내용

	주요 개정 내용	공시 항목
E / 환경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등 환경보호 항목 확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공공기관 참여 유도 - 환경보호 영역 책임성 제고 유도	- 에너지 사용량 (연간 에너지 총 사용량 공시-4월) - 폐기물 발생량 (연간 폐기물 발생 실적 공시-4월) - 환경법규 위반 현황 (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항 공시-수시) - 저공해 자동차 현황 (저공해 자동차 보유·구매 현황 공시-7월)
S / 사회	정보보호, 인권, 상생협력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사회적 포용 문화 확산 계기 도모	-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위원회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진단 결과 공시-7월) - 인권경영(기관의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현황 공시-7월) - 동반성장 평가 결과 (중기부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공시-7월)
G / 지배구조	- 윤리경영 진단 필요 항목 추가 - 조직 자체적 반부패·청렴활동 쇄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 뒷받침 유도	- 자체 감사부서 현황(기관 자체 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현황 공시-4월) - 청렴도 평가 결과(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시-7월)

자료 : 기획재정부 2022

〈표 6〉과 같이 경영공시 항목에 ESG 관련 항목이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약화된 항목을 폐지하거나 유사 항목을 통합·재조정하여 전체 항목을 재검토하였다. 공시 항목 수가 많은 기관운영(20개)과 주요 사업 및 경영성과(13개) 항목에 대해 중분류를 신설하여 ESG 경영 관련 항목 분류를 통해 통합공시 항목에 대한 가독성을 높였다.

5. KOICA의 ESG 도입

공공기관의 ESG 도입은 이제 필수사항이 되었다. 다만 공공기관의 ESG 도입과 전략은 공공 기관이라는 특수성뿐만 아니라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KOICA의 경우 개발협력 수행기관으로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국내가 아닌 국외이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개발도상국 인 점, 개발협력기관으로서 글로벌 가치 실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높다는 점, 국내외 다양한 범위의 고객, 이해자가 발생하는 등의 특수성을 갖는다. KOICA는 이러한 특수성을 바탕으로 2021년 ‘KOICA ESG 경영 이행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글로벌 가치(SDGs)를 실현하는 개발협력 선도기관으로서 기관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지구환경과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도 향상시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으로 KOICA의 ESG를 정의하였다(KOICA 2021a). 또한, 〈표 7〉과 같이 ESG 각 3개 부문별 전략방향 설정 후, 기존에 KOICA의 각종 전사 전략 분석 및 ESG 리스크 분석을 통해 11대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전략별 ESG 리스크 분석(K-ESG 및 SDGs 기준)을 통해 33개의 실행과제를 도출하였다.

〈표 7〉 KOICA ESG 경영전략 체계도

기관 비전	글로벌 가치를 실현하고 상생의 국익을 창출하는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기관		
전략 목표	ESG 경영 지수 공공부문 최우수 달성		
전략 방향	환경(Environmental) 탄소중립 경영 강화	사회(Social) 사회적 가치 경영 고도화	지배구조(Governance) 윤리·준법, 혁신 경영 구현
전략 과제 (11대)	1.1. 개도국 탄소중립 및 기후회복력 향상 지원 1.2. 2050 탄소중립에 기여 하는 환경경영 이행	2.1. 글로벌 안전경영 2.2. 인권기반 개발협력 확대 2.3. 개발협력 일자리 창출 2.4. 지역사회 사회공헌 강화 2.5. 중소벤처기업 동반성장 확대 2.6. 공정한 인사와 채용	3.1. 윤리준법 경영 3.2. 국민소통 확대 3.3. 이사회 역할 강화를 통한 책임경영

자료 : KOICA 2021a

환경(Environmental) 분야는 국내외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경영 이행 및 협력국 탄소중립,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그린/기후변화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외 녹색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외진출 기업,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자 하며, 저탄소 ODA 사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중소벤처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선도하고자 한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와 사회 분야를 접목하여 ODA를 통해 환경 관련 스타트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사회(Social) 분야는 기업이 사회의 인식변화를 주도하고 구성원(고용, 인적자본관리, 안전 및 보건 등), 고객 및 협력업체(국민, 동반성장, 공정한 운영 등), 사회(고용충격, 취약계층, 지역사회 등)로 구성된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발전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하였다. 이에 KOICA는 고유의 분야인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 활동인 일자리 창출, 인권보호, 지역발전, 동반성장, 안전 등의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신규 파트너와의 협업 시 ESG 경영을 지원하며 사업 수행 시 인권영향평가 실시, 성과지표 내 인권증진 정도 목표를 설정하는 등 인권기반 접근에 기초한 사업 기획 및 이행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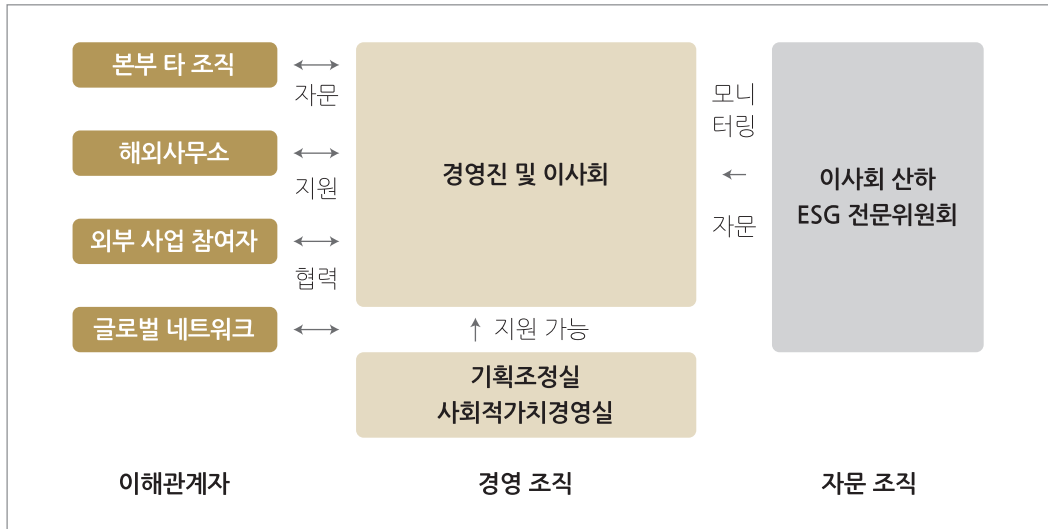
지배구조(Governance) 분야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강화, 신뢰관계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요구 증대 그리고 의사결정체계의 투명성, 청렴 및 반부패 등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요소에 대한 부분을 골자로, 경영시스템 재구성 및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ESG 경영체계 구축 및 안착을 전략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KOICA는 2021년, ESG 경영 조직체계를 구축하였다. 경영진(이사회)을 ESG 전담 조직(기획조정실, 사회적가치경영실)이 지원하고 ESG 전문위원회가 자문하며 기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소통하는 체계이다. 이사회 산하 ESG 전문위원회는 이사회 및 경영진에 대한 ESG 관련 자문, 제언,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내외부 다양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KOICA는 앞으로 이 사회의 역할 강화를 통한 책임경영 및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과 기능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G(지배구조) 분야와 관련해서 KOICA는 이미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 ODA 기관 중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기준 ISO37301(준법경영 시스템), ISO37001(부패방지 시스템) 통합 인증을 획득하였다. ISO37301은 준법경영 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조직 운영에 있어 컴플라이언스(준법)⁵⁾ 정책 및 리스크 대응 체

5) 컴플라이언스 : 조직구성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사전적, 상시적으로 통제, 감독하는 체제

〈그림 1〉 KOICA ESG 경영 조직체계(안)



자료 : KOICA 2021a

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고 효과적임을 인증하는 제도이며, ISO37001은 2016년 ISO가 국제 사회와의 합의를 통하여 구축한 부패 방지 국제표준이다.

기업이나 기관이 부패 방지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증이 부여되므로, 이 인증을 받은 KOICA의 경우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패 위험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과 절차를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KOICA는 준법경영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이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임직원 교육과 준법 관련 모니터링 등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인증 외에도 ESG 경영의 일환으로 반부패·청렴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내부규정 일제 정비, 청렴 문화 확산 활동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높아지는 공공기관의 청렴·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KOICA 2021c).

또한 ESG 경영 노력의 하나로 국민의 만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 소통 및 고객만족도 제고,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지속하고 있다. 2021년에는 6개월 동안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수도권 소재 50여개 중소기업 파트너사를 방문하여 애

로점을 듣고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등 “찾아가는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기업들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과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였으며(KOICA 2021d), 향후 검토를 통해 방문 기업의 지역이나 분야를 넓혀가는 등 파트너들과의 소통도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KOICA는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본 평가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 제공 운영현황 평가이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 개방 · 활용 · 품질 · 기타 5개 영역을 우수 · 보통 · 미흡으로 나누어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2021년 평가에서 5개 전 영역 우수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는 KOICA가 ESG 경영의 일환인 데이터 경영을 위해 매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갱신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데이터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KOICA는 선제적으로 ESG를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나, K-ESG 가이드라인 및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 개정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ESG 경영전략은 향후 기업의 방향성, 국내 상황, 산업 전반 동향분석을 통해 개정될 K-ESG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며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 기관 운영 측면에서 국내 ESG 특성과 함께 공공기관의 동향도 반영하는 동시에 개발협력사업 측면에서 50여개 협력국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므로 복잡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 개정안을 고려할 때, 주요 변경사항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KOICA가 주안점을 둔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인권경영체계 확립 및 내재화, 동반성장 이행현황 지속 모니터링 그리고 윤리경영(감사, 반부패 및 청렴 활동)을 위한 종합청렴도 상승 노력 등으로 볼 수 있다. ESG 경영으로 분류된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환경보호’, ‘사회 공헌활동’,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 공시 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KOICA의 ESG 이행 관련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KOICA 홈페이지 및 ALIO 등을 통해 지속 공개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III. 개발협력 사업에서의 ESG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내 ESG 이행은 조직 경영 차원에만 초점을 두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ESG라는 거대한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ESG 이행은 조직 운영의 측면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인류 공동번영 · 글로벌 가치 창출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개발협력기관의 관점에서는 ESG를 조직경영 측면과 아울러 개도국에서 수행되는 사업 내에서 적용되는 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앞서는 개발협력기관이자 공공기관인 KOICA의 조직 경영차원의 ESG 전략을 분석해 보았다면, 이번 챕터에서는 개발협력 사업 속에서의 ESG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KOICA 외에도 대표적 개발협력 기관인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와 일본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의 개발협력 사업 내 ESG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개발협력사업 속에서 ESG의 도입이 어떻게 그 효과성과 가치를 창출하는지 살펴보며 KOICA에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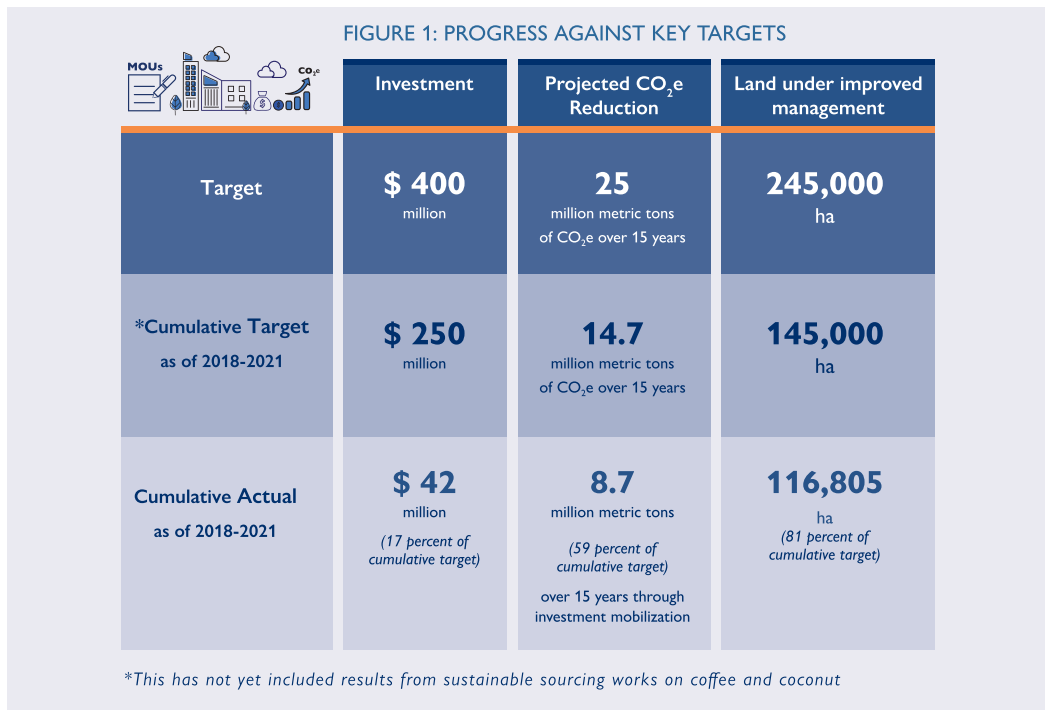
1. USAID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개발협력사업에서 민간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빠르게 수용하고 있으며, ESG가 이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USAID는 민간기업과의 ESG 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접근한다. 첫째, ESG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수익 추구형 투자자부터 국내외 기부자, ESG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까지 다양한 민간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민간재원을 개발협력사업에 활용한다. 둘째, 기존 파트너들에게는 ESG 사업 및 ESG 요소의 적용을 제안하고, 사업 재정 지원 전에 이를 협의하고 반영하여 기존의 파트너십과 재원 또한 ESG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고 있다(USAID 2021a). 더불어 USAID의 ESG 사례를 살펴보면, 자국 기업의 ESG 실천 및 투자를 독려하고 연계하여 개도국 내 현지 기업이 ESG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를 통해 현지의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은행, 지역사회 등 실제 개도국 내 참여자들의 ESG 도입과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변화를 지원하고 있다.

1) 그린 인베스트 아시아(Green Invest Asia, GIA)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동남아시아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은 37%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계 평균 증가량의 두 배 이상이며, 상업적 농·임업이 아시아 삼림 벌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시아에서 지속가능한 토지 활용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민간의 투자 없이는 약 4천억 달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USAID GIA는 메콩 전략 파트너(Mekong Strategic Partners)와 태국의 컨트롤 유니온(Control Union Thailand)과의 협업 하에 팩트(Pact)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농·임업 지원 플랫폼으로, 동남아시아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기업의 ESG 활동을 위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즉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농·임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와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혼합금융 플랫폼이다(GIA 홈페이지).

〈그림 2〉 GIA 주요 목표 및 현황



자료 : USAID GIA

[사업사례] 탄소 감축을 위한 네슬레와의 협업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커피 생산의 1/4을 차지하는 세계 최고의 커피 생산국이다. GIA는 해당 지역의 커피 농업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하여 네슬레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파트너십에 따라 GIA와 네슬레는 네슬레의 오랜 공급 파트너사들로부터 농장 수준(farm-level)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익성이 높으면서 저탄소 농업 모델을 식별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커피 분야의 탄소 감축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네슬레는 공급망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일 기회를 모색하고,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새로운 지속가능한 로드맵을 구상하며 발표했다(USAID 2021a).

GIA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지는 않으나, 특히 ESG 평가에 적합하도록 기술 지원을 함으로써 투자 요건을 충족시키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은 상시 지원 가능하며, 2021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총 196개 기업이 지원하였으며, 50개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GIA는 ‘지속가능한 농·임업 비즈니스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농·임업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과 환경 친화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다.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농·임업 중소기업에 지속가능성 연계 상품으로 대출 시, 기존 은행 대출 과정 내 소규모 대출 통합, ESG 평가 요구사항 추가, 대출의 환경적 영향력 평가 등 중소기업에 위한 지속가능성 대출 발행을 위해 저비용의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더불어 ESG 경영목표 이행정도에 따라 금리 인하 또는 인상으로 대출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그동안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에 비용적 부담이 있었고, 농·임업 비즈니스를 하는 토지 소유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수확량, 토지 소유권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대출 시 고위험군에 속했다. 이에 GIA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을 위한 대출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기업과 은행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기업의 ESG 실천을 함께 지원하고자 한다(USAID 2019).

2) 메콩 지속가능한 제조업 연합(Mekong Sustainable Manufacturing Alliance)

USAID는 지속가능 공동체 연구소(Institute for Sustainable Communities, ISC), ELEVATE 및 아시아 기술연구소(Asian Institute for Technology, AIT)와 협력하여 메콩 지역의 제조업 내 ESG 표준 채택을 증가시킬 지역 이니셔티브인 'Mekong Sustainable Manufacturing Alliance'를 발족했다. 제조업 연합은 메콩 지역 인구의 건강, 생계 및 복지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메콩 지역 개발의 성과를 달성하고, 민간기업 주도의 성장을 실현하여 천연자원에 대한 관리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메콩 지역 국가인 캄보디아, 태국 및 베트남의 제조업 부문은 인건비 상승과 천연자원 취약성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어 지역 전체의 ESG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ESG 투자가 창출하는 긍정적인 투자 수익에 대한 제조업체의 인식과 이해 부족, ESG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부족, 금융 접근성 결여 등의 장벽이 있지만 새로운 파트너십 및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여 메콩 지역 간 제조업의 시너지를 강화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메콩 지역 제조업체 내 ESG 도입은 ESG 표준 채택 촉진 생태계를 구축하여 업체들이 글로벌 구매자의 소싱표준 충족을 통해 구매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운영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긍정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제조업체가 어려움 없이 ESG를 채택할 수 있게 되면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업 연합은, 업체들의 지속적인 ESG 참여를 위하여 글로벌 브랜드의 구매력을 활용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 접근성 확대를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공장의 실습을 통해 학습하고 생성된 추진력으로 지역 경쟁력 촉진과 참여 제조업체들의 지속적인 개선 방향 모색을 지원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방식은 ESG를 실천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이 주도적인 선택을 하도록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그 지역의 경제 성장과 자립을 목표로 한다. 연합을 통해 메콩 제조업 내 ESG 표준을 적용하여 급속한 산업 성장 모델에서 야기되는 해로운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더 큰 ESG 생태계를 생성하고 발전시켜 메콩 지역의 제조업을 보다 경쟁력 있게 만든다(USAID 2021b).

3) 메콩 세이프가드(Mekong Safeguards program)

메콩강 하류 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7천만 명의 생계 수단이지만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확산되면서 급속히 황폐화되고 있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은 강력

한 환경 및 사회적 보호 장치가 없으면 지역사회와 환경이 희생되며 개발될 수밖에 없다. 세계은행(World Bank, WB),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과 같은 주요 인프라 금융기관들이 이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 규제 및 완화 노력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며 이로 인해 어업, 임업, 농업, 대기질, 수질 및 홍수 규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USAID는 ‘Mekong Safeguards’를 통해 이 지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기반 시설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환경, 생물다양성 및 저해한 지속가능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수익성 있는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세이프가드는 다음을 목표로 하는데 1)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표준의 보다 강력하고 일관된 적용을 촉진하여 기반 시설 프로젝트의 부정적인 환경 영향 최소화 2) 의사결정자들이 스마트 기술, 시스템 규모의 인프라 계획 및 혁신을 통해 불필요하고 유해한 인프라를 피하도록 장려한다(USAID 2019).

〈표 8〉 USAID Mekong Safeguards 주요 사항

예시 활동	- 인프라 프로젝트의 환경 및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한 데이터 배포 및 분석 - 지속 가능한 금융, 외국인 직접 해외 투자,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에 대한 환경 기준과 관련된 규제 및 정책 개혁 지원 - 개발, 계약, 재정 측면에서 더 높은 환경 기준 채택 및 적용 지원 - 전략적 환경 평가, 비용 편익 분석, 참여 프로세스 및 시스템 사고와 같은 도구를 통해 보다 스마트한 인프라 계획 촉진
영향	- 메콩 하류 지역의 대규모 기반 시설이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및 환경적 결과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개발될 수 있도록 함
파트너	- USAID의 아시아 지역 개발사업 → 파트너십 형태 - 아시아 재단(The Asia Foundation), 글로벌 환경 연구소(Global Environmental Institute), Stimson Center, and Vermont Law School

자료 : USAID 2019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USAID와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가 공동 출자한 메콩 세이프가드 프로그램(USAID and Australia Mekong safeguards program, 2018~2023, 1055만 달러)은 국가들이 ESG 표준을 적용하여 해당 지역의 인프라 개발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결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의 대규모 에너지 및 운송 사업에 ESG를 도입하여 환경 및 사회적 부정적 영향을 줄이면서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전환을 가속하는 것이다. 정부, 개발자, 금융권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참여자가 함께하는 투명하고 강화된 ESG 표준을 도입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관심을 유도하며 지역사회 경제 번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 시 나타날 수 있는 환경파괴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은행, 지역사회를 참여시켜 직접적인 기술 지원, 지역 차원의 협업 및 플랫폼 구축, 투명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 시 강화된 ESG 표준 이행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이러한 강화된 ESG 표준을 프로젝트에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 기관과 금융기관을 지원한다. 지역 내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ESG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계획, 추적, 모니터링하는 의사결정권자의 인식과 역량을 향상하는 것까지 목표로 삼는다(USAID 2022).

2. J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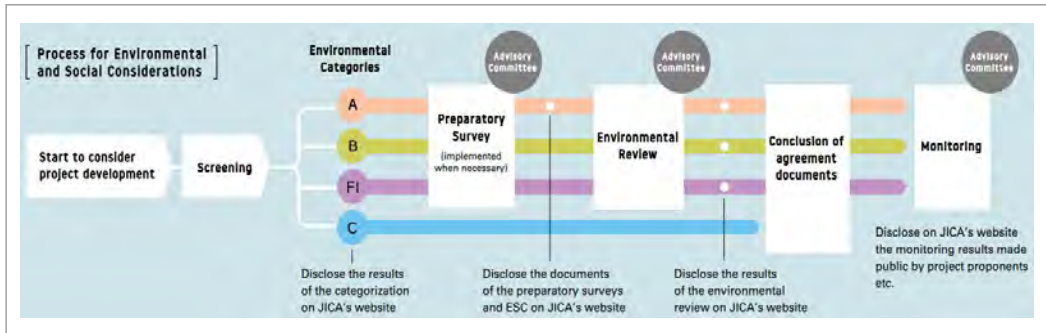
일본은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들에게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환경에 대한 기업 보고 관련 규제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의 ODA 수행기관인 JICA 역시 ESG 동향과 사업 추진 방향을 맞춰가고 있음을 ‘JICA Sustainability Report’를 통해 밝히고 있다(JICA 2021a).

JICA는 모든 사업에서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스크리닝하고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ESG를 실천하고 있으며 SDGs 달성과 더불어 ESG 달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분류, 수행 체계를 확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개발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환경사회고려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ESC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이 줄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회피 및 완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시행하는 개발협력사업의 환경·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JICA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과 우수 사업 사례를 인용하여 파트너와 면밀히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ESC 가이드라인

JICA의 ESC(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가이드라인은 2010년 처음 제정되었다. ‘ESC’는 보건과 인간안보, 자연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대기,

〈그림 3〉 JICA ESC 가이드라인 절차



자료 : JICA 2021a

물, 땅, 쓰레기,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등 모든 것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다. JICA는 비즈니스 프로토콜 및 중기계획 등의 문서에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 시 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 초기 단계부터 모니터링까지 사업의 생애주기에 걸쳐 광범위한 환경·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며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면 이를 재검토하여 보완한다(JICA 2022). 한편,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환경 및 사회적 고려사항의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JICA는 ESC 가이드라인 지침 시행 10년 만에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고, SDGs와 관련된 최근 동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2022년 개정을 완료했다.

JICA ESC 가이드라인의 적용은 ① ‘Screening’ → ② ‘Environmental Review’ → ③ ‘Monitoring’의 3단계로 설정하여 각 사업의 단계별로 환경 및 사회적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그림 3〉에 나타내듯이, 사업 발굴 후 진행되는 첫 번째 ‘Screening’ 단계에서는 각 사업의 영향력 규모에 기반한 4개의 카테고리로 사업을 분류한다.

각 카테고리는 아래 〈표 9〉와 같이 정의되며, JICA 홈페이지에서 모든 사업의 4가지 분류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JICA 2021a). 카테고리 A는 프로젝트가 환경 및 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복잡하거나 전혀 없는 영향을 미쳐 평가하기 어려운 프로젝트,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되돌릴 수 없는 프로젝트 등도 포함한다.

카테고리 B는 프로젝트가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잠재적인 악영향이 카테고리 A 프로젝트보

다 덜한 경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악영향의 정도는 사업대상지별로 다르고 카테고리 B 사업으로 분류되어 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정상적인 완화조치를 쉽게 설계할 수 있다. 카테고리 C 프로젝트는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카테고리 FI는 다음 세 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1) JICA의 프로젝트 자금 조달은 금융 중개기관 또는 집행기관에 제공 2) 하위 프로젝트의 선정 및 평가는 JICA의 자금 지원 승인 후에만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므로, JICA의 자금 지원(또는 프로젝트 평가) 승인 전에는 하위 프로젝트를 지정할 수 없음 3) 이러한 하위 프로젝트들은 환경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표 9〉 ESC 가이드라인 사업 분류 4가지 카테고리

Environmental Categories	A	likely to have significant adverse impacts on the environment and society
	B	potential adverse impacts on the environment and society that are less adverse than those of Category A
	C	have minimal or little adverse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society
	FI	whereby JICA provides funds to a financial intermediary and subprojects could not be identified prior to JICA's approval of the transaction

자료 : JICA 2021a

다만 JICA는 필요에 의한 경우, ‘Screening’ 단계 이후에도 프로젝트의 각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중대한 영향이 드러난 경우나 JICA가 정하는 기타 특별 상황에서 가능하다.

두 번째, ‘Environmental Review’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보고서와 ESC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프로젝트 제안자가 제출한 문서와 함께, 측정되는 사업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력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JICA는 제안자와 함께 토론하며 사업의 역효과 및 순효과를 확인한 후 환경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측정한다. 마지막 세 번째 ‘Monitoring’ 단계는 프로젝트 제안자 등에 의해 실행되며, 4개 카테고리 분류에 따른 사회적·환경적 영향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한다.

ESC 가이드라인을 통해 JICA가 SDGs 달성과 더불어 ESG 달성을 위한 개발협력사업의 발굴, 분류, 수행 체계를 확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환경 및 사회 고려사항에 대한 책무와 다양한 요건을 설정하고, JICA 사업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또한, OECD DAC 5대 평가기준 항목⁶⁾에 근거하여 사업을 평가 및 선정하며 투명하게 그 결과를 JIC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파트너십 프로젝트

JICA는 GCF⁷⁾로부터 2017년 7월 일본 최초로 이행기구 인증을 획득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JICA 지속가능성보고서(JICA Sustainability Report)’에서 서술했듯이 JICA는 ESG 달성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직면한 이슈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GCF와의 파트너십 프로젝트는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GCF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외부 기금을 활용한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JICA는 2021년, 동티모르 기후 탄력성 향상 및 산림 벌채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경관 관리(Community-based Landscape Management for Enhanced Climate Resilience and Reduction of Deforestation in Critical Watersheds in Timor-Leste)를 첫 사업으로 GCF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았다. 동티모르의 산림은 2003년 73.8%에서 2012년 58%로 감소하였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천연자원과 이동 경작 및 농경지 확장, 과도 방목 등의 토지 관리 관행들은 산림 파괴와 산림 황폐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라는 결과를 낳았다(JICA 2021b).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JICA가 개발한 산림 관리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산림 황폐화 및 산림 파괴를 감소시키는 것과 함께,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해당 인구의 생계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혼농임업을 제한하여 그들이 기후변화의 부정적 측면과 융합하며 생존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이로써 20년 동안 온실가스를 440만톤 줄이고 SDG 13, SDG 15 그리고 SDG 17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OECD DAC 5대 평가기준 : 적절성(relevance), 효율성(e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영향력(impact),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2019년, 신규 항목인 일관성(coherence)을 추가하였음

7)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자간 기금 관리를 위한 유엔 산하 국제금융기구. 2010년 UN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제16차 당사국 총회(COP16)에서 설립됨

8) SDG 13(기후행동), SDG 15(육상 생태계 보호), SDG 17(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동티모르 사업 외에도, 2021년 7월 GCF는 JICA의 ‘몰디브 기후 회복력 증진 및 안전한 섬 구축’ 프로젝트를 승인하였고 앞으로도 JICA는 개발도상국의 탄소제로 시대로의 전환 및 기후 복원력 있는 사회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GCF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3. KOICA

KOICA는 2021년 GCF 이행기구로서의 인증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지원과 탄소중립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GCF 수탁 수행사업이나 국별협력사업에 KOICA는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이행지침’을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환경·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또한, 기업 협력사업을 통해 민간재원 유치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민간수요 중심의 ESG 개발협력사업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1) KOICA의 ESG 협력 사례

앞서본 KOICA의 ESG 경영전략 체계도에서 환경(E) 분야의 전략 방향인 ‘탄소중립 경영 강화’를 위한 개도국 탄소중립 및 기후회복력 향상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2021년 7월, KOICA는 GCF 이행기구(Accredited Entity)로 인증받았다. 이를 통해 KOICA는 GCF 자금을 활용하여 글로벌 탄소중립 지원과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기후회복력 사업 추진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

KOICA는 그동안 WB,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등 여타 GCF 인증기구들과 협력하여 총 4건, 총 사업비 5.6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해왔다. GCF와는 2019년부터 과테말라에서 3,800만 달러의 규모로 서부고원지대 기후변화 복원력 강화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GCF가 2,200만 달러, KOICA가 500만 달러, 과테말라 정부가 1,100만 달러를 분담하는 이 사업은 과테말라 고산지대에서의 토지 및 수자원 관리 활동들을 통해 수문 순환계 지속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KOICA는 산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와 농림업을 통해 주민조직 생계기반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KOICA 2021b).

또한, KOICA가 진행한 ‘과테말라 중북부 3개 지역 복원력 강화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사업’은 여의도 면적(290ha)의 약 15배인 4,311ha의 산림을 복원했으며, 총 44,196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GCF가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해 2028년까지 2,980만 달러를 투자하여 이 지역의 사업 수혜자를 15만 명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이는, KOICA의 ODA 사업 계획과 성과를 국제기구가 인정하고 사업의 효과를 확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KOICA 2022a). 남태평양 피지에서서도 GCF와 공동 사업을 진행 중인데, KOICA-GCF-피지개발은행(Fiji Development Bank, FDB)은 함께 총 1,000만 달러의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오발라우섬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농업공존형 방식을 채택하여 토지 이용률을 극대화하는데 노력 중이다.

KOICA는 GCF 수탁 수행사업이나 국별협력사업에 적용하는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이행지침⁹⁾’을 통해 ODA 사업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협력대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지침은 KOICA가 수행하는 ODA 사업 중 국별협력사업 및 GCF 수탁 수행사업에 적용된다. IFC가 제시한 8대 성과표준을 준수하며 사업의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의 각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공개를 통해 효율적인 결정을 지원한다.

이처럼 KOICA는 ESG 이행을 위해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추진전략과 연계한 그린 ODA 추진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KOICA 고유의 업을 살린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GCF 이행기구로서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민간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와 함께 혁신적 방식의 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ESG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기업협력사업을 통한 ESG 실현

KOICA는 ESG 이행 방안의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의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KOICA와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기업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민간기업들의 ESG 기반 신사업 추진 수요와 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수요를 더하여 기업협력사업은 ‘KOICA-대기업 플랫폼 이니셔티브 모델’을 수립하며 본격적으로 개편되었다.

민간개발 자원 유치 필요성 대두, ESG 관련 국내외 수요의 증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동반

9) KOICA는 2013년부터 ‘환경주류화 이행 지침’을 제정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이후 ESG의 촉진을 위해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지침으로 확대 개정함

성장 도모 등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ESG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모델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본 사업의 협력모델은 기존의 ‘기업제안 공모형’과 주요 정부정책 및 KOICA 사업전략에 부합되는 사업을 발굴하는 ‘KOICA 제안 공모형’에 더해 ‘ESG 공동기획 사업형’과 ‘ESG 공동기획 투자형’의 총 4개 모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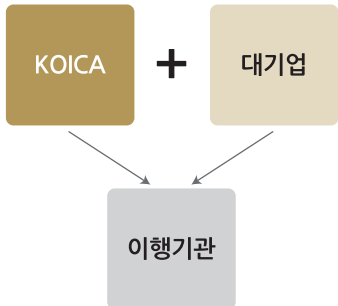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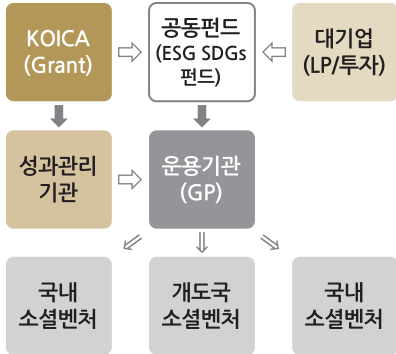
‘ESG 공동기획 사업형’은 KOICA와 대기업이 사업을 공동 기획하고 이행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먼저 대기업이 사업을 제안하고 KOICA와 공동 기획하는 방식으로, 사업심사 및 재원 분담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행기관은 비영리법인, 시민사회단체, 중소기업 등이 참여 가능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KOICA는 대기업과 이행기관이 함께 KOICA의 협력국인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이행기관은 개발협력사업 참여 저변 확대와 자금 안정성 확보, 대기업은 사업 재원 부담 완화와 KOICA 플랫폼을 활용하여 우수 이행기관과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이 기대효과로 작용한다. 또한, KOICA는 민간의 트렌드 및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사업 공모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며 ESG 기반 사업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를 기대해볼 수 있는 방식이다.

KOICA와 포스코 건설이 약정체결을 통해 KOICA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마타바리 취약계층 청년 대상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기능인력 양성 사업’은 포스코의 마타바리 건설 현장 인근지역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건설기능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지원한다. 마타바리 지역은 방글라데시에서도 외진 곳에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많은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었다. 그런 청년들을 위해 본 사업을 통해 건설기능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하였고 방글라데시 마타바리 지역의 청년들은 교육을 받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었으며, 포스코 건설은 현지 기능 인력의 수요를 충족하게 되었다. KOICA는 이러한 대기업과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사업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ESG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인 ‘ESG 공동기획 투자형’은 ESG 수요를 기반으로 한 주제로 KOICA와 대기업이 함께 사업을 기획하여 공동 펀드(위탁 운용)를 조성해 국내와 현지의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KOICA의 증여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투자를 통해 펀드가 구성되고 이 펀드를 국내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 및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AC)에 위탁 운영하는 구조로 구성되어있다. 투자형 협력모델은 다양한 대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대규모의 개발협력 ESG 임팩트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를 통한 재무성과 도출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한 ESG 가치 실현 및 SDGs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표 10〉 공동기획형 대기업-KOICA 협력모델(안)

	ESG 공동기획 사업형	ESG 공동기획 투자형
주제	ESG 주제 중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세부 주제	
규모	총 100억 원 내외(1:1 매칭 기준)	총 50억 원 내외(1:1 매칭 기준)
운영	별도 이행기관 선정	국내 운용사 선정 및 펀드 운용 위탁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협력 모델		

자료 : KOICA 2021e

이처럼, KOICA는 ESG 환경 변화 및 대기업의 ESG 경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대기업 맞춤형 사업을 기획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의 협력을 통해 KOICA는 SDGs 달성에 기여하고, 기업은 KOICA의 개발도상국 ODA 사업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기업별 비즈니스 분야에 따른 ESG 사업 발굴을 통해 두 분야의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협력모델뿐만 아니라 ESG 임팩트 투자 사업도 함께 살펴보면, 이는 2021년 신규 도입한 사업으로 개발도상국의 난제 해결 솔루션을 보유한 현지 소셜벤처를 발굴하여 KOICA 사업비 및 민간 파트너의 투자를 지원하여 현지 소셜벤처 생태계 성장과 민간 파트너의 개도국 진출에 동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간 파트너사는 개도국 소셜벤처 투자를 통해 ESG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개도국 기업 성과 관리 시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개별적 관점으로 사회적 가치 관리를 실행한다.

〈표 11〉 2021년 시범 추진한 ESG 임팩트 투자 사업(2건) 개요

파트너	대상국가	총예산	사업명 및 추진내용 요약
임팩트 스퀘어	베트남, 캄보디아	30억 원 (KOICA: 21억, 파트너: 9억)	- 베트남-캄보디아 ESG 임팩트 투자 사업: 메콩임팩트브릿지 (2021-2026) - 소셜벤처 60개사 대상 KOICA 9억 지원(grants), 파트너사 9억 투자(equity&loan)
MYSC	베트남	22억 (KOICA: 15억, 파트너: 7억)	- 베트남 혼합금융 기반 ESG 임팩트 투자 사업(2021-2025) - 소셜벤처 40개사 대상 KOICA 6억 지원(grants), 파트너사 6억 투자(equity&loan)

자료 : KOICA 내부자료

기존의 사업에서 2021년에는 시범사업으로 ‘ESG-임팩트 투자형 사업’의 형태를 계승하는 동시에 발전시켜 혼합금융사업(Blended Finance Solution, BFS)을 신설하였다. 전년대비 KOICA 사업지원 규모를 증대(5억 → 7억)하였으며, 사업 방식을 공모 형태에서 수시 발굴로 개선하고 개도국 소셜벤처에서 산림·태양광 등 개도국 인프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하였다. 앞으로는 기업과 KOICA가 사업을 공동 기획한 후 이행기관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공동 펀드(위탁 운영)를 통해 국내와 현지의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방식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산림 및 태양광 등 인프라 투자형 사업도 확대하여 BFS를 신설할 예정이다(KOICA 2022b).

4. 개발협력사업에서의 ESG

개발협력기관의 ESG 이행은 민간기업에서 추구하는 ESG 철학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개발협력기관의 목적은 이윤창출이 아니며 이미 SDGs 이행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ESG로 인해 특별히 목적하는 바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ESG와 SDGs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ES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참여자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개도국 내 환경·사회·거버넌스 3가지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이 글로벌 ODA 사업을 수행하면서 ESG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 대응에 세계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이를 지원, 모니터링, 평가할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많은 개발협력

기관의 ESG는 환경 분야에 초점을 모으게 되지 않을까 짐작해볼 수도 있겠다.

USAID, JICA, KOICA까지 총 3곳의 개발협력기관이 ESG를 개발협력사업 내 어떻게 적용하고 이행하는지 살펴보았다. 세 기관 모두 E(환경) 부문을 중점적으로 ESG 이행 방향성을 잡고 기관 차원에서 ESG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각 기관별로 표출되는 ESG의 형태는 모두 달랐는데 USAID는 민간역할을 중요시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기업, 정부, 지역사회 등 개도국 내 ESG 적용과 실천을 지원하는 사업이 두드러졌다. JICA는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환경과 사회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환경)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KOICA는 환경(E) 분야 사업 확대와 함께 대기업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국내기업의 ESG 경영철학 도입 및 실천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 중이며 이는 점차 중소기업, 소셜벤처와의 협력과 파트너십 및 사업모델 다각화로 발전해가는 중으로 보인다.

두 유관기관의 사례를 통해 KOICA는 사업 수행 시, 국내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ESG 실천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의 ESG 도입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기획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KOICA의 관점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이미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 중이기 때문에 ESG가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다만, SDGs 달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자기 검열이 될 수 있고,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기관 운영 효율성 및 사업 효과성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ESG 이행은 중요하다.

IV. 결론 - KOICA에의 함의

ESG는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 모두에게 광범위하게 급부상하는 화두가 되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기업의 ESG 이행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며 정부 방침이 정해진 만큼, 국내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은 ESG 경영 및 전략에 더욱 촉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ESG에 대한 세계적인 요구에 비해 개발협력에서의 ESG 논의는 SDGs 논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ESG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철학적 개념이라는 점과 ESG와 SDGs의 시발점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에서 별도의 ESG 논의 필요성은 크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ESG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시민사회 등과의 협업, 공공기관으로서 ESG 선도적 도입 의무 등으로 인해 ESG 이행을 위해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개발협력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 ESG 이행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초기 단계인 만큼, 관련 전략 문서, 사례 효과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KOICA는 준정부기관이자 개발협력 수행기관으로서 변화된 정부 방침에 따라 ESG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기관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ESG를 기관 운영 및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기관의 목표인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개발협력에서도 참여기업의 ESG 준수가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 개도국 내 ESG 확산 및 인지도 제고, 그리고 이를 통한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 국제개발협력 기관의 최근 수행된 ESG 사례, KOICA의 ESG 경영 현황과 성과를 정리하였다. USAID는 다수의 해외기업과 협력하여 ODA 사업 속에 ESG를 적용하여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탄소배출 감축, 근로자 및 인권 보호,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투명하고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의 노력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JICA는 개발도상국의 환경 및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관점으로 ESG를 바라보며, ESC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 분류, 사회적 채권 및 펀드 발행을 통해 SDGs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KOICA 역시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IBS)을 통해 국내 대기업들의 개도국 내 활약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정부 방침을 적용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ESG 전략 수립 후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개발협력기관으로서 KOICA는 우리 기업의 ESG 실천을 위해 글로벌 ODA 참여를 촉구하여 효과성 있는 개발협력사업을 기획 및 수행하고, 이를 통해 기업은 이익 추구 및 개도국의 자립 역량 강화 기여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KOICA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1년 12월, ‘KOICA ESG 경영 이행전략’을 수립하였고 한국경제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에서 2021년 사회 부문 특별상 수상에 이어 2022년에는 ‘준정부기관’ 부문 중 가장 높은 점수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피지 태양광 사업으로 온실가스 9만 톤을 줄이는 사업과 민간 일자리 약 7,800개 창출, 코로나19로 인한 병상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업무시설인 본부 내 연수센터를 격리시설 및 생활치료센터로 개방하여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기여한 성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다(한국경제 2022). 이러한 배경에서 KOICA의 ESG가 지속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발협력기관으로서 추진하는 사업과 기관 ESG 경영 차원에서의 향후 방향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KOICA의 ESG 달성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경영 측면부터 살펴

보면, 먼저 기관의 중장기전략과 ESG 경영전략이 분리되지 않고 일치해야 한다. ESG 이행전략과 기관의 전략이 상이하거나 중장기 경영전략 및 목표에 ESG 경영 관련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개발협력이라는 특수 분야와 공공기관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명확한 방향설정이 어렵고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 물론 현재 KOICA 중장기 경영목표 내 전략체계에 'ESG 중심 경영'으로 전략 방향 및 목표, 과제들이 설정되어 있지만(KOICA 2021f) 이후 정부에서 제작 및 배포한 K-ESG 가이드라인과 기재부의 경영공시 개정사항 등의 방침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ESG 이행전략과 기관의 중장기 경영목표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ESG와 관련된 변화를 받아들이고 ESG 경영추세 확산에 따른 기관 차원의 준비로 경영전략 전환을 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그간의 경영성과가 경영혁신, 사업혁신, 성과창출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ESG에 중점을 두고 경영방침을 설정해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임직원 ESG 인식 향상 교육을 통해 경영전략 방향 설정 시 내부적으로 이해와 합의가 되어야 하며 기관 ESG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현 상태 진단과 객관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전문가와의 협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KOICA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여 기관 차원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ESG 성과를 SDGs와 연계하여 집약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ESG 및 지속가능경영이 화두가 됨에 따라 국내 다양한 기업들이 발간하고 있으며 기업의 ESG 경영 및 비재무적 성과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최윤희 외 2022).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경제, 사회, 환경, 지배구조의 이슈로 분류하며, 대개 GRI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제3자 검증 또한 진행한다. 국내 공공기관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각 기관의 성격에 맞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혹은 사회책임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에, KOICA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경영 내용을 포함한 ESG 경영에 대한 성과를 공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ESG 경영 성과에 맞춘 정보공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KOICA의 본업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ESG 달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정리한 'KOICA 글로벌 ESG 성과사례' 보고서를 신설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뻗어나가는 KOICA의 ESG 이행현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공개를 통해 대내외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ESG 관련 의사결정에 반영할 필요 또한 있어 보인다.

사업 수행 측면에서는, 기업협력사업을 통해 ESG 이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KOICA와 대기업의 ESG 신규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수행기관(중소기업, 소셜벤처 등)들과의 파트너십 다각화, 참여 파트너사 선정 시 ESG 지속가능경영 수준 및 의지를 고려하고 ESG 건전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내 민간기업과 함께 ESG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IBS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ESG 수행 또한 장려할 수 있다. IBS 사업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뤄지는 사이클 안에서 환경·인권·사회적 가치를 함께 적용하고 개도국이 ESG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해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KOICA 사업에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ESG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듯이 JICA는 ESC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 수행 및 평가 시 기준점을 세웠고, USAID는 사업 파트너 선정 시 적용하는 ESG 평가 기준을 수립했다. KOICA도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이행 지침이 있지만, 국별협력사업 및 GCF 사업에 적용을 한정하고 있다. KOICA의 ESG 사업 활성화 및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국별사업, 봉사사업, 연수사업 등 전사 사업을 아우르는 ESG 기준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KOICA 사업은 SDGs를 고려하며 수행하기 때문에 ESG와 무관한 사업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 ESG 사업인지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ESG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사업 수행 및 평가과정을 포함한 ESG 사업의 효과성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OICA의 사업 분야는 국제개발협력으로, 이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도우며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KOICA의 사업은 국내 수행기관 및 봉사단, 청년인턴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1차적으로 수행되며,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들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국민들을 통해 2차적으로 수행되기에 ESG가 이미 녹아있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공동노력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KOICA의 사업을 통해 개도국 내 ESG 도입으로 인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자국 기업의 글로벌 ESG 실천을 지원하며 모두가 상생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전례 없는 위기를 지나며 지속가능성에 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으며,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각각의 요소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기관 운영뿐만 아니라 개도국 내 자립을 위한 사업의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이를 통한 개발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촉구해가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22. “통합공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보도자료. 2.7
- 금융위원회. 2021. “금융권 첫 공공「ESG 정보 플랫폼」서비스 개시” 보도자료. 12.20
- 관계부처 합동. 2021. K-ESG 가이드라인 v1.0
- 김재필. 2021a. ESG 혁명이 온다. 한스미디어
- 김재필. 2021b. ESG 혁명이 온다 2. 한스미디어
- 박영석, 이효섭. 2021. “기업의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이슈보고서. 21-10. 자본시장연구원
- 산업통상자원부. 2021. “우리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발표” 보도자료. 12.1
- 삼정 KPMG 경제연구원. 202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조병옥. 2021. “‘ESG’는 갑자기 나타난 일시적 트렌드 아니다.” 중기이코노미. 9.17 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7511 접속일 2022.5.13
- 조신. 2021. “좋은 ESG 경영의 출발점.” 이로운넷, 8.13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489> 접속일 2022.6.10
- 전국경제인연합회. 2021. “평가기관별로 ESG등급 얼마나 다른가 봤더니...” 보도자료. 4.26
- 정진섭, 우시진. 2021. “4차 산업혁명과 ESG 경영: 유통산업의 한·중 비교를 중심으로.” 경영컨설팅연구. 21(no.3) 351-366
- 최윤희, 이기호, 이상명.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중요성 분석을 통해 바라본 지속가능경영 이슈와 10년의 변화.” KBR. 제26권 제1호
- 한국수출입은행. 2021. 한국수출입은행 ESG 경영 소개서

한국거래소. 2021. ESG 정보 공개 가이드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2.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안내

한국경제. 2022. “남동발전 ‘ESG 大賞’... 클린 에너지 앞세워 온실가스 확 줄였다.” 6.15

한동숙. 2021. “공공기관의 ESG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상범, 권세훈 임상균. 2021.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IFC. 2021. IFC ESG Guidebook

Jean Pesme, Anderson Caputo Silva. 2021. “Sovereign ESG investing: We can do better.” World Bank Blogs. 접속일 2022. 4. 30 <https://blog.worldbank.org/psd/sovereign-esg-investing-we-can-do-better>

JICA. 2022.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English Version*)

JICA. 2021a. JICA Sustainability Report 2021

JICA. 2021b. JICA Annual Report 2021

KOICA. 2022a. “과테말라서 여의도 면적 15배 산림 복원... 코이카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 결실 나타나” 보도자료. 2.8

KOICA. 2022b. “기업의 개발도상국 원조 사업 참여 문턱 낮춘다... 코이카, ESG 기반의 기업협력사업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 4.20

KOICA. 2021a. 내부문서 ‘KOICA ESG 경영 이행전략(안)’ 보고

KOICA. 2021b. “코이카, 녹색기후기금(GCF) 이행기구로 인증받다” 보도자료. 7.2

KOICA, 2021c, “국내 ODA 기관 중 최초! ISO 기준 준법경영-부패방지시스템 통합 인증 획득” 보도자료, 12.17

KOICA, 2021d, “개발도상국 사업 참여하는 기업들 고민 함께.. 51개 기업 찾아가는 소통 펼쳐” 보도자료, 12.31

KOICA, 2021e, 내부분서 ‘[제도개선] ESG 기업 KOICA 대기업 협력 강화/개선 방안’

KOICA, 2021f, 내부분서 ‘KOICA 중장기 경영목표(2021-2025)’

MSCI, 2022, “MSCI ESG Ratings Methodology.” 접속일 2022.05.22. <https://www.msci.com/documents/1296102/21901542/ESG-Ratings-Methodology-Exec-Summary.pdf>

OECD, 2020a, Global Outlook on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1: A New Way to Invest for People and Planet, Paris

OECD, 2020b, Boffo, R., R. Patalano, “ESG Investing: Practices, Progress and Challenges,” Paris

Robeco, “Sustainable Investing Glossary-What is ESG?.” 접속일 2022.06.15. <https://www.robeco.com/en/key-strengths/sustainable-investing/glossary/esg-definition.html>

USAID, 2019, “USAID MEKONG SAFEGUARDS”

USAID, 2021a, “USAID Green Invest Asia Fact Sheet.” 접속일 2022.05.22. <https://www.usaid.gov/asia-regional/fact-sheets/usaid-green-invest-asia>

USAID, 2021b, “Mekong Sustainable Manufacturing Alliance Fact Sheet.” 접속일 2022.05.21. <https://usaid.gov/asia-regional/fact-sheets/meKing-sustainable-manufacturing-allinace>

USAID, 2022, “USAID and Australia Mekong Safeguards Program.”

웹사이트

유엔 책임투자원칙 홈페이지 www.unpri.org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 www.ksa.or.kr/ksi/5009/subview.do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https://www.koreaexim.go.kr>

대외경제협력기금 홈페이지 <https://www.edcfkorea.go.kr>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 <https://www.cgs.or.kr>

USAID Green Invest Asia 홈페이지 <https://greeninvestasia.com>

연구자료

연구정보 2022-05-072

